

크누트 하임 박사, 잠언, 3강, 여호와를 경외함

© 2024 크누트 하임(Knut Heim)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잠언을 가르치고 있는 Dr. Knut Heim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세션, 여호와를 경외함,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입니다.

성경 잠언에 관한 세 번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책의 서문인 첫 장에서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았고, 나는 이미 전형적인 격언의 일종인 7절에 대해 간단히 언급했으며 여러 면에서 성경에 관한 모든 것을 요약했습니다. 잠언, 지혜와 믿음의 책. 그리고 나는 지금 그것을 다시 읽을 것이고, 이 시리즈의 세 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이 특별한 구절과 주님에 대한 경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다른 관련 구절들의 해석에만 거의 독점적으로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강의의 목적 중 일부는 실제로 몇 가지 주요 본문의 도움을 받아 주님을 경외한다는 문구의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하고, 그 내용을 책 연구인 지적 작업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잠언.

자, 여기 갑니다. 7절을 다시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이 구절 전체를 살펴보겠지만, 지금은 우선 '주님을 경외함'이라는 문구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시작, 지혜의 시작으로 번역된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구절의 후반부에서 참된 지혜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대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글쎄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기서 우리가 갖게 될 하나님의 형상은 학교에서 체벌이 불법인 20세기나 21세기 서양 교사의 모습은 아니지만 아마도 우리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을 1930년대 유럽에서도 우리 부모님이 알고 경험했던 큰 막대기를 가진 일종의 매우 엄격한 교사로, 학교에서 매우 엄격한 교사들에 의해 정기적으로 체벌을 받는 분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따라서 신은 우리가 잘못된 모든 작은 일에 대해 우리 손목을 때릴 것이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기를 원하는 것을 더 잘 배우는 엄격한 종류의 부모-교사 인물이라는 생각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것이 주님을 경외한다는 이 문구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제안하고 이에 대해 좀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주님을 경외하는 이 문구가 소위 관용어이고 관용어는 실제로 단어의 문자열과 같은 단어의 조합임을 말하고 논쟁하고 정당화하고 싶습니다. 그 순서는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구의 개별 단어 의미의 총합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제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관용구의 몇 가지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교사이고 여러분에게 양자물리학에 관해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다가 갑자기 끼어들어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 제 흐름을 따라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면요. 내 드리프트를 잡았나요? 그것은 관용어입니다.

이제 나는 그 점에서 드리프트가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내가 썰매에 앉아 눈이 내리는 경사면을 표류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나요? 아니면 강이나 바다 위의 부유물을 타고 표류하고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내 표류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종류의 잡기일까요? 아니요. 관용적 표현인 'Catch My Drift'는 내가 가르쳐온 것의 더 깊은 의미를 이해했습니까? 내 드리프트를 잡았나요? 이제 '내

표류를 잡아라'라는 문구의 어떤 내용도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구가 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적인 신뢰를 표현하려는 관용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적인 신뢰를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긍정적이고 신뢰하는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신뢰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어 긍정적으로 영감을 받은 순종으로 이어진다. 이제 나는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는 핵심 구절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신 마지막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서 18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18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을 보고 있습니다. 20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시내산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위엄과 거룩함과 능력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것은 매우 전형적으로 묘사되는 신현(Theophany), 즉 귀, 눈, 어쩌면 코, 잠재적으로 촉각과 같은 인간의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신의 존재 방식에서의 신의 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처음 만난 후 백성들은, 심지어 모세와 함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로들까지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가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일 우리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무서워요.

우리는 겁이 난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스스로 우리의 대표로 가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당신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당신은 산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분명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지 않고 중보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화가 이어집니다. 18절을 읽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두려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들으리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한 것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를 경외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거 알아냈어?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은 오직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를 경외함을 너희 속에 두어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큰 언약, 시내산 또는 시내산 언약의 협상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를 보내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를 경외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공포, 불안, 두려움, 근심이라는 의미의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대조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문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격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문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 구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기다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언약의 규정, 계명 등을 계시하시고, 그들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해방 구원 행위에 응답하여 자발적인 순종의 언약을 맺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들을 속박에서 꺼내는 일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와 감사로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다음 두려움 때문인가 아니라 옳은 일이기 때문에 마음의 깊은 방향에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매우 전능하신 분이시며 매우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 뻔뻔스러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올바른 방법은 경외심, 경외심, 경이로움, 깊은 겸손, 때로는 매우 적절하게 우리 자신의 결점, 한계, 죄책감, 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고 있다.

그리고 적절한 방법은 물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비싼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크고 값비싼 자비를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경건한 삶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실제로 유대인이나 기독교인, 현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에 대해 말할 때 관용적 방식으로 '주를 경외하라'라는 문구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현대 관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렇게 훌륭한 여성도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자이거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장담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자나 남자로 묘사하는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당신 자신도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자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자든, 당신은 그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으며 그들도 결코 그들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모범적인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하느님에 대한 깊은 헌신과 순종적인 생활 방식, 모범적인 관대함의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등.

이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잠언서에서 분명히 중요한 것은 이것, 저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서문 2절과 3절에서 이것을 말했는데, 이 책은 실용적인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키우고 있는 신앙은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기여하는 순종적인 생활 방식으로 이어지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경외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활 방식,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는 일상적인 상호 작용에서 실제적이고 순종적이며 생명을 주고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향상시키는 활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이제 1장 7절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그러므로 새 개정 표준역(New Revised Standard Version)에서 시작으로 번역된 시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든(우리가 잠시 후에 알게 될) 실제적이고 순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없이는 분명히 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매우 중요한 측면입니다.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종교적인 일이지만, 의무보다는 관계에서 나오는 일이다. 이제 여기에서 시작되는 번역된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논의할 가치가 있는 이유와 실제로 다양한 성경 번역본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번역본이 있고 많은 주석서에 이것에 대한 다른 해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적 표현은 히브리어로 지혜의 시작이라는 단어가 reshith 이기 때문입니다. 호크마(hokhmah) , 레 시트(reshith) 는 머리를 의미하는 로쉬(rosh) 에서 파생된 히브리어 단어의 일종입니다 .

그래서 문자 그대로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비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혜의 머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혜가 나중에 잠언에서 의인화될지라도 여기서 지혜가 의인화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머리라는 단어는 그것이 지혜의 어떤 특정한 측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은유로 사용됩니다. 이제 저는 브루스 월트키(Bruce Waltke)의 훌륭한 잠언 주석의 짧은 부분을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reshith이라는 단어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정당화하는 18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지혜의 우두머리인 호크 마(hokhmah) 는 그것을 NRSV의 시작 부분으로 번역했고, 이제 그가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시작 또는 reshith을 의미할 수도 있고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첫 번째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이 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는 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는 철학적으로 그것은 아마도 주요한 것, 주요한 것 또는 본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또 다른 지혜의 가르침으로 평가하고 그것과 별도로 지혜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개념은 아직 지혜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는 데는 관심이 없지만 그것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데에는 관심이 있는 이 맥락에 거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Waltke가 제시하는 주석적 주장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모호함, 즉 이 세 가지 모두를 의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논평에서는 4개와 5개의 의미를 추가했습니다. Waltke가 여기에서 논의한 것에는 실제로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7절의 모호함은 9장 10절의 평행 구절에서 시작을 뜻하는 명확한 단어 *tehillat* 에 의해 해결되어 우리에게 첫 번째 의미를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 다소 복잡한 해석을 요약 하자면 , 우리가 가진 것은 모호함입니다. 지혜의 우두머리인 레시트 (*reshit*) 라는 단어는 다중적이다.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Waltke는 적어도 세 가지를 언급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언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에 대해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다음 고대 랍비 힐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매우 전통적이고 훌륭한 주석 방법을 사용합니다. 힐렐은 그 당시에 성경의 모호한 구절은 더 잘 알려지고 덜 모호한 구절에 맞춰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덜 모호하고 더 명확한 구절.

그리고 브루스 월트키(Bruce Waltke)가 올바르게 식별한 것처럼, 잠언 9장 10절에서 우리는 모호하지 않고 매우 단순하고 분명한 유사한 표현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것을 여러분에게 읽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언 9장 1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신 말씀이니라. 그리고 여기서 히브리어로 시작이라는 단어는 *tehillah* 또는 *tehillat* 라는 구문입니다 . 그리고 *tehillah* 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히브리어 *tehillah*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Bruce Waltke가 제시한 대로 논쟁이 진행됩니다. 그는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머리라는 문구가 모호하고 우리가 실제로 알지 못하며 그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 하지만 고맙게도 9장 10절이 있는데 꽤 비슷하고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시작이라는 뜻의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작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주장이고,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며, 현대 학자들이 거의 보편적으로 따르고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이에 반대하고 싶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제가 소수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내 생각엔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나 당신은 내가 이 구절의 주요 해석을 당신에게 주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나의 해석과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나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잠언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하게 될 많은 일에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여기서는 1장 7절과 9장 10절의 세부 사항을 다시 다루기 전에 먼저 더 넓은 논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시하고 싶은 더 넓은 주장은 욕기, 시편, 아가와 마찬가지로 잠언에서도 우리가 문학 장르로 가지고 있는 것이 시라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시적 텍스트이다.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텍스트입니다.

상상으로 쓴 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쓴 사람, 인간 작가는 문장 제작자, 단어 예술가, 단어 과학자, 말하자면 1장 7절을 포함하여 세계 문학의 시적인 작품을 쓴 창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뿐만 아니라 성경 정경 전반에 걸쳐, 특히 시서에서 더욱 그러하듯이 성령은 우주의 궁극적인 창조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 전체가 상상력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를 매우 존경하는 또 다른 동료이자 스페인 가톨릭 구약학자인 루이스 알론소 쇼켈(Luis Alonso Schökel) 을 만나게 합니다. 그는 몇 년 전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20세기 히브리 시의 위대한 해석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세계, 전 세계의 라틴계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당연히 훌륭하고 훌륭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요 간행물 중 하나인 히브리 시의 매뉴얼(A Manual of Hebrew Poetry)에서 1984년, 1988년에

출판된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서 훨씬 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텍스트, 특히 시적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강의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제가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다. 단순히 상상력으로 쓴 글은 상상력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중요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상력으로 쓴 글은 상상력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장 7절의 기자가 문자적인 시작 단어가 아닌 비유, 즉 시적 표현을 사용할 때 그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월트키 등의 주장은 비록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지혜의 머리인 예술적 표현이 문제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는 실제로 이 매우 중요한 구절의 문학적 생산에 있어서의 결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비록 대부분의 학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 주장 뒤에 숨은 의미는 1장, 7장의 저자가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시적 표현을 사용했고 끔찍한 모호함을 만들어 불쌍한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다행스럽게도 다른 사람이나 그 자신이 나중에 9장 10절에서 스스로 정정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정말? 정말? 정말? 책의 서문에서 저자가 책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하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배우게 될 내용이며 제가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책을 통해 이것이 나와야 할 일종의 실제적인 적용이며, 이것이 바로 당신이 시작하려는 교육 사업에 참여하면서 당신이 갖고 노력해야 할 종교적, 영적 태도입니다. 그 저자가 자신의 서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산물 이라는 놀라운 종교적 금언에 관해 말한 내용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사람이 실수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가장 중요한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본질이라는 모호하고 다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한 표정으로 말하고 싶었다. 이는 의도적인 모호함입니다. 이는 단점이라기보다 자산으로서의 모호함이다.

이것은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상상력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자연스러운 의지가 지식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지적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바로 그 본질임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지혜 교육의 가장 높은 목표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도달하려는 교육적 성취를 제한하기보다는 향상시키는 깊은 종교적, 영적 태도를 가지고 이 지적 사업에 현명하게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이 강의 시리즈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듣고 있는 강의와 상관없이 잠언 자체를 위해 잠언 자체를 계속해서 읽고 연구함으로써 본질, 즉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지혜 사업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책 전체를 소개하면서 1강에서 앞서 말한 내용과 조금 연결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잠언은 구약과 신약을 포함한 성경의 거의 모든 책에서 매우 중요한 주요 종교적 개념,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시내산의 신, 성전, 제사장, 제사, 출애굽. 잠언에는 이 중 어느 것도 언급되지 않았는데, 과거 20세기 중반에 일부 학자들은 잠언의 지혜가 윌리엄 맥(William Mc)이 가장 유명하게 행한 세속적 지혜 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케인은 1970년 구약성서의 잠언 주석에서 지혜문학이 대체로 세속적이라고 매우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임스 크렌쇼(James Crenshaw)도 때때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의 성경 지혜 문학 분야에서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학자들 중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서문에서 잠언이 자연스럽게 절제된 종교적인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당연하게 여길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그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1장 7절과 9장 10절과 같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된 문구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문구 중 두 가지를 더 하도록 안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문구는 잠언 전체에 걸쳐 반복되는 매우 중요한 핵심 문구입니다. 잠언 915절 중 약 10% 정도가 대략 91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 맞죠? 응.

91개의 구절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언급하거나 직접적으로 또는 적어도 매우 명확하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책의 거의 모든 페이지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일이 2장에 있는데,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내 딸아, 네가 만일 1절에 있는 내 말을 받아들이고 지혜를 배우면, 2절에서 4절, 그리고 5절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우리의 말, 우리의 관용어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지혜의 머리와 관련된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Waltke의 생각을 확장하고 싶습니다. 2장 5절에서는 지혜를 추구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평행구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장 7절에서 지혜의 머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활력을 주고 가능하게 하는 특징 중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2장에서는 그 반대가 됩니다. 여기 잠언에 제시된 것과 같은 참된 지혜에 대해 배울 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학자로서 저는 욕기와 전도서에도 비슷한 지혜가 있다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텍스트나 일종의 지혜 텍스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혜를 공부한다면 창조주, 구속주, 구원자, 지지자, 인도자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과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순종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의 머리에 대한 이 아이디어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들의 주장을 간파할 수 있게 해 주었던 Bruce Waltke와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부합니다. 이제 15장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핵심 문구가 있습니다.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요, 겸손은 존귀 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한편으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지혜의 교훈이 하나이고 동일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은유적 표현이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입니다. 그것들은 하나이고 같은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말해서 존재론적인 것이 다른 것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은유적으로 말하면 잠언이 계속 발전하고 펼쳐지면서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혜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이와 같은 지혜 본문을 공부할 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가 되는 과정과 활동과 상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 보셨으면 하는 것은 잠언서는 철저하게 신학적이고 신학적으로는 관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한 것이며 신학적으로 실용적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 가치관, 의사 결정,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하고 공동선에 기여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신학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잠언을 가르치고 있는 Dr. Knut Heim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세션, 여호와를 경외함,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입니다.